민족문화연구 제95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95호에는 총 13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학문 영역별로는 문학 3편, 역사학 5편, 국어학 2편, 미술사 1편, 종교사 2편 등으로 구성되었고, 시대별로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근대 연구 논문이 6편, 대한제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연구 논문이 7편이 있다. 여느 호처럼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글이라는 점에서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논문에서 다룬 쟁점과 결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덕원의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에서는 동맹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에 천착하여 당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살폈으며, 김춘수와 당태종의 입장 외에도 여러 나라의 역학적 양상을 다루었다. 대야성 함락을 시작으로 제려연화와 당항성 전투, 김춘수와 당 태종의 면담을 중심으로 나당동맹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당 태종 죽음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당대의 양상을 정치하게 읽어내었다.

정우락의 "구암학 연구의 자료 범위와 한국유학사에서 구암 이정의 역할"에서는 국역『龜巖全書』제작에 즈음하여 구암학 연구를 위한 자료 범위와 구암 이정이 한국유학사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구암 이정(1512-1571)이 이황과 함께 중용학을 바탕으로 도학을 추구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여 종의 성리서를 출간하였고, 서악정사와 옥천정사를 세워 존현양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퇴계학파에서 선진 제자였으며, 이황과는 학문적 동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유학사에서 잊혔거나, 거의 잊힐 뻔한 이정을 소환하여 그에 대한 학술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수환은 "임진왜란 의병장『일기』조작의 한 사례—이경연의「龍蛇日錄」을 중심으로—"에서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장 이경연의『제월당실기』의「용사일록」에 실린 의병 활동이 사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비판 없이 일부 향토사 연구자들에 의해 왜곡되는 과정을 밝힌 다음 이를 통해 창의의병 후손들이 관변의 협조하에 선조를 현창하는 사업을 벌이는 폐해까지 다루었다. 더욱이 「

용사일록」는 이경연 자신의 일기가 아닌, 10대손 이석정이 족조 이동영이 찬술한 「족조제월당공유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작한 것이어서 함월산성의 울산의병에 관한 기록이 모두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학계가 지역사학계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각성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권은지는 "鄭允容의 『北路紀略』 硏究"에서 『북로기략』에는 백두산 지변의 지형, 大澤의 원류, 백두산 정계비를 비롯하여 함경도 지방의 전반적인 정보, 豐沛之鄕으로서의 함경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태조와 선대들의 사적과 유적, 북방 지역 주변 민족에 대한 내용,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의 의병 활동, 이 지역의 특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로기략』이 다른 북방 관련 저술과 비교하면 그 양과 내용이 풍부하여 조선 후기 북방 관련 저술 가운데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가 태부족한 상태에서 『북로기략』의 내용 구성과 특성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인성의 "『한국천주교회사』(샤를르 달레, 1874)의 편찬과 한글 번역"에서는 샤를르 달레가 『한국천주교회사』를 편찬하게 된 배경과 시기, 편찬 과정에 대해 살피고, 그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교류 과정, 『한국천주교회사』가 조선에 전해져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까지 분석하였다.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는 그가 조선의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원고를 완성하게 된 과정,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은 한글 번역을 추진하였으나 출간되지 못하고 『경향잡지』에 연재된 과정, 1981년에 한글로 완역된 과정까지 상세히 다루었다. 이로써 초기 한국의 천주교회사 편찬 및 유통 과정을 통찰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연은 "〈태원지(太原誌)〉의 일주(一周) 상상력과 다원(多元)의 세계관—고소설의 사유 실험에 대한 단상을 더하여—"에서 조선후기 소설 〈태원지〉 속 유교적 사유는 비-유교적 사유와 상호구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숫자 감각에 의한 서사 구성과 지리 상상, 일주의 상상력과 다원의 세계관으로 구현됨을 분석하였고, 조선 후기에 경합하는 '지식장'의 모습과 지적 운동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서사적 사유 실험의 태도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태원지〉가 당대의 문화틀에 대해 재검토하면서 역동하는 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박재현은 "郭法鏡의 행적을 통해 본 친일-항일 구도의 재고"에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친일 승려로 알려진 곽법경(1877-?)의 행적 연구를 통해 친일-항일 구도를 전제한 연구방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호남불교계의 거두였고, 일제강점기 조선불교계의 양대 기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곽법경은 매불 사건 등 친일적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지만, 항일 민족주의 경향으로 알려진 기관이나 기구에서 활동한 정황도 포착된다는 점에서 그의 모순된 행적을 학술적 관점에서 민족주의나 제국주의 혹은 친일- 항일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불교의 경우에는 친일-항일 구도의 그물망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이 구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인물과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곽법경의 사례를 통해 증명해 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친일-항일 구도가 역사적 실제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참신한 성과라 할 것이다.

권동우의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의 조선포교 양상 연구—『조선총독부관보』(1911-1945) 기록을 중심으로—"에서는 일본계 종교 가운데 '교파신도'가 근대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포교를 전개했던 양상에 대해 『조선총독부관보』를 중심으로 지역별, 시기별, 교파별 양상을 분석하고 도표로 제작하여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교파신도의 조선포교가 생각보다 조선 내 각 지역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했고, 교파신도 조선포교의 대부분은 조선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조선총독부관보』를 중심에 두고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종교에 관한 잡건철』, 『조선(朝鮮)에 있어서 종교 및 향사일람(享祀一覽)』과 기타 관공서의 기록, 교단 내 자료, 언론기사 등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계 종교의 조선포교 양상에 대한 윤곽을 그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장명선은 "연길교구(延吉教區)의 교육운동—해성학교를 중심으로—"에서 베네딕도회를 중심으로 1920년대부터 간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지속했던 연길교구가 부속학교였던 해성학교를 통해 이룬 교육적 성과에 천착하였다. 해

성학교가 당시 간도지역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그리스도교계 사립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 성과가 높았던 이유를 모든 교과목을 각 민족의 모국어로 가르쳤고,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교인을 양성하고자 하였으며, 지육(智育)과 덕육(德育)을 병행하는 교육방법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간도지역의 신교육 및 신문화 교수를 통한 천주교의 활동을 밝혀낸 논의로서 주목할 만하다.

장영민의 "1950년대 미국 국제정보교육교환법(PL 402)에 의한 한·미 교육교환—학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국제정보교육교환법(PL 402)에 의해 시행된 한국과 미국 간에 시행된 교육교환 프로그램이 미국정부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활용된 배경과 과정, 규모, 시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학문과 지식을 미국식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학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과정, 변화 과정을 세밀하게 파헤쳤다. 논문에서 필자는 교육교환 프로그램이 미국정부의 정책대로 장기적으로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엘리트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를 미국식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서유리의 "역행(逆行)의 정치—한국의 노동미술 (1987-1994)—"에서는 노동미술이 국가와 자본의 통치가 부여한 감각적 배치를 거스르는 역행(逆行)의 정치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85년 미술집단 두렁이 노동조합을 위한 그림을 제작함으로써 노동미술이 시작되었다고 보면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6월 항쟁을 계기로 미술집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미술의 실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걸개그림의 역할과 기능, 공장 벽화의 의의, 노동자미술학교의 출현, 노동미술위원회의 역할 등을 통해 한국의 노동미술이 미술가가 계급적 타자를 만나 미술의 표현과 존재 방식을 확장시키고 노동자가 새로운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만든 역사적 성과를 낳은 미술이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김봉국은 "강원·경북 동해안 접경 지역의 w 반모음화 관련 현상"에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의 접경지역인 삼척 지역어와 울진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w 반모음화와 관련된 현상이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간말음절 두음의 자음 유무,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의 종류, 동사 어간의 음절수, 어간말이 개음절인지 폐음절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규칙의 적용 양상을 살피고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김령령·신중진의 "남북 음악 전문용어 유형과 어종 분석—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음악 교과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학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남북 음악 전문용어를 대응쌍 형태의 동일 여부에 따라 나누고 서구 음악의 영향을 적게 받은 전통 음악으로서의 동양 음악 용어와 서양 음악 용어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어종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특히 남북 동형 전문용어는 즉시 통합이 가능한 용어, 어문규범 통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한 용어로 전체 음악 전문용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내어 향후 음악 분야의 남북 용어 통합에 대한 가능성과 실효성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호의 해외한국학자료 해제에서는 유지복이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송하첩(松下帖)』을 소개하였다. 『송하첩(松下帖)』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서화(書畵)에 능했던 송하(松下) 조윤형(曺允亨, 1725-1799)의 필적을 모아놓은 서첩(書帖)이다. 총 37장 74면으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 각 서체로 씌어있다. 글씨의 내용은 45수의 시와 서법이론에 관한 명구 6구이다. 조윤형이 후배 서화가였던 김덕형의 글씨 학습을 위해 각 서체로 직접 써준 것으로, 74면이라는 방대한 지면에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각체가 두루 구사되어 있으며, 각 글씨 또한 다양한 서풍을 선보이고 있어 조윤형의 서풍 연구에 유용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전대 명인의 글씨를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점차 창신(創新)을 염두에 둔 분방한 운필을 추구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문화연구』 제95호에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미술사, 종교사, 방언학, 용어론 등 각 분야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쟁점들을 발굴하여 신선한 결론에 이른 성과들이 눈에 띈다. 각 분야 독자들의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학의 종합 학술지를 지향하는 『민족문화연구』는 분야별, 주제별, 방법론별로 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민족문화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